광우병 질병 유무 판단 않고…

‘주저앉은 소’ 등 50마리 밀도축

장성 한 창고서 … 유통 여부 수사

정밀 검사를 거쳐 광우병 여부를 판단한 뒤 유통돼야할 ‘주저앉은 소’(다우너 소)가 대량으로 밀도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성경찰은 1일 주저앉은 소가 포함된 50여 마리의 소를 밀도축한 윤모(53)씨를 축산물 가공 처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도운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윤씨 소유의 장성군 황룡면 창고에서 쇠고기 17t과 뼈를 비롯한 부산물 13t 등 30t 가량의 쇠고기를 압수하는 한편 매매전표와 통장 거래 내역 등의 분석을 통해 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안전성 여부=윤씨의 창고에는 50마리 분의 도축된 쇠고기가 있었으나 광우병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관된 분량 이외에 사전에 유통된 쇠고기가 있는지를 캐고 있다.

또 윤씨 일당으로부터 도축 전 압수한 3년된 젖소 1마리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사 결과에서도 소바이러스성 설사염과 자궁내막염에 걸린 것으로 판명됐다.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부상이나 난산 등 단순한 원인으로 인한 주저앉음 현상이 일어난 경우가 아니면 문제 부위를 적출한 뒤 식용 이외에만 사용해야 한다.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 관계자는 “당시 창고 안에서는 광우병 검사에 필요한 머리, 목 부분은 없고 갈비와 고기, 뼈 등이 주를 이뤘다”며 “밀도축되기 전 주저앉은 소에 대해서는 무조건 광우병 검사를 해야 안전성이 담보된다”고 설명했다.

◇유통 여부=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난산(難産) 등 4가지 질병으로 인한 ‘주저앉은 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인으로 인한 소에 대해서는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돼 있다.

광우병에 걸린 소는 소각 및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윤씨 일당은 이러한 절차 없이 주저앉은 소를 몰래 도축해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윤씨 등은 경찰에서 “광주·전남북과 충청지역에서 주저앉은 소를 공짜에 가져와 식용이 아닌 사료용으로 판매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yongho@

▲‘주저앉은 소’(downer cow)= 정육·낙농업계에서 걷거나 설 수 없는 소를 일컫는 용어다. 소가 일어설 수 없게 되는 원인은 저마그네슘혈증, 저칼슘혈증 등의 질환 때문이다. 난산으로 인한 송아지의 기형이나 성장과정에서 소가 다리를 다친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광우병처럼 신경과 관련된 병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광주·전남북과 충청지역 일대에서 ‘주저앉은 소’ 등을 모아 밀도축한 쇠고기가 장성군 황룡면의 한 창고에 가득 쌓여 있다. /장성=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해군 지원자 감소·입영연기 우려

병무청 ‘노심초사’

천안함 침몰 여파 촉각

천안함 침몰 사고 여파로 해군 입대를 희망하는 지원자들의 감소와 입영연기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1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로 인해 해군 지원자 수가 크게 줄어들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로 인해 해군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향후 지원자 감소는 물론, 자칫 무더기 입영연기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해군 지원자들은 평균 4대 1이 넘는 높은 경쟁을 통해 입대했으나, 천안함 침몰 이후 지원자가 상당부분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실시된 해군 모집에서는 일반·전산·통신·기관·전기 등에 걸쳐 총 150명이 지원했다. 병무청은 이 가운데 50명을 선발키로 하고 오는 22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에는 해군 모집에 총 140명이 지원한 가운데 55명이 선발돼 입대를 앞두고 있다. 병무청은 이들 가운데 입영연기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태 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모(63·광주시 서구 풍암동)씨는 “군 입대를 앞둔 아들이 해군에 지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 중”이라며 “해군에 가면 배를 탈텐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해군에 보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병무청 관계자는 “천안함 침몰 이후 지원자 감소나 입영연기 사태 등이 빚어질까봐 걱정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큰 동요는 없지만 여러 가능성에 대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부부가 마트서 통장 훔쳐

광주동부경찰은 1일 자신이 일하는 마트에서 직장 동료의 통장을 훔친 오모(28)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오씨의 남편 김모(3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는 지난해 10월 28일 광주시 동구 계림동 모 마트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 이모(35)씨의 통장을 훔친 뒤 남편을 시켜 337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들고양이들의 습격?

장흥서 70대 할머니 숨진채 발견

1일 오전 10시45분께 장흥군 용산면에 사는 박모(71) 할머니가 자신의 집 마당에 쓰러져 숨져있는 것을 이웃주민이 발견, 경찰과 119 구급대에 신고했다.

박 할머니 왼쪽 팔꿈치 아래 부분은 뼈만 남아 있었지만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상의와 하의에는 개·고양이로 추정되는 동물의 털이 묻어 있었다. 혼자 사는 박 할머니는 지병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왔으며, 평소 들고양이에게 먹이를 자주 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숨진 뒤 들고양이 등에 의해 긁혀 상처가 생긴 것 같다”는 검시관의 소견 등으로 미뤄 박씨가 심장질환 등으로 쓰러져 숨진 뒤 들짐승의 습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탈주범 신창원에 100만원 배상”

쌍나팔

○…대법원 2부는 1일 교도소에서 기자의 접견을 막고 편지를 외부로 보내주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탈주범 신창원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

○…청송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신씨는 2008년 교도소에서 2개 언론사 기자의 접견 신청을 거부하고, 기자들에게 쓴 편지 6통을 보내주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1심·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던 것.

○…신씨는 또 수감생활 중 디스크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500만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 /연합뉴스

‘음주운전 거짓 증언’ 일가족 3명 처벌

광주지법 2명은 법정구속

음주측정 거부로 사법처리 위기에 놓인 가족을 돕기 위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일가족 2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도근 판사는 1일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38)씨와 서모(37)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법원을 속여 재판을 방해하려했으면서도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과 범행 동기, 범행 후 태도 등을 감안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8년 7월 11일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입건된 정모(72)씨의 아들과 사위로, 정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정씨의 아내 박모(61)씨와 박씨 딸의 친구(36)까지 동원해 음주측정 당시 아들 정씨가 아버지의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췄다.

하지만, 법원은 “아버지 정씨가 운전한 것을 봤다”는 대리운전 기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거짓말임을 밝혀내고, 정씨의 아내 박씨와 박씨 딸의 친구 대해서도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장애 비관’ 父子 동반자살

지난달 31일 오후 5시30분께 목포시 대양동 목포실내체육관 주차장에 주차된 정모(66)씨의 승용차에서 정씨와 정씨의 아들(36·지적장애 2급)이 숨져있는 것을 지인 안모(여·53)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차량 뒷좌석에 타 있던 정씨는 왼쪽 손목에서 피를 흘린 상태였으며, 조수석에 앉아 있던 아들의 목에서는 목 졸림 흔적이 발견됐다. 승용차 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아들이 걱정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방과후 지원금’ 유용 중학교 여교사 구속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일 광주 모 고교 재직 당시 시간강사 채용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광주시교육청의 지원금을 받아 유용한 광주 모 중학교 교사 김모(여·58)씨〈본보 3월 25일자 6면〉를 뇌물수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광주 모 고교에서 근무하며 강사 1명으로부터 채용대가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고, 강사 3명으로부터 방과 후 수업비 280만원을 되돌려받는 등 4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7급 9급 공무원/경찰직
서울고시학원!! 서울고시학원!! 서울고시학원!!
합격 전문학원과 함께하면 합격은 쉽고 빨라집니다!
→ 2009년 광주, 전남 사복직 이영 조경에 이영 합격, 100% 합격률
→ 2009년 광주시 교육행정직 이영 조경에 이영 합격, 100% 합격률
→ 2009년 광주, 전남 소방직 이영 조경에 이영 합격, 100% 합격률
서울고시학원!! 서울고시학원!!
개강 매월 1일
행정직/교육행정직/세무직 경찰직/소방직 전문
국어 : 승대웅 선생님
경찰직
서울경찰전문학원 [251-7959]
합격 전문가 서울고시학원 514-4560 kigosi.co.kr

의사/약사가 되는 길
PEET/ MEET/ DEET
특별초청: 임동섭 교수 [일반성물학]
MDPass 의학원 [광주] 203-2453 mdpass.co.kr